

계시의 법칙(The Rules of Revelation) 중 발췌 '코크는 남성적인 곳이었다.'

리사 맥어너니

모린이 보기에 코크가 남성적인 곳이라는 사실은 그대로였지만, 그렇다 해도 한 번 힘을 쥐서 밀어보기라도 해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다. 모린은 이름과 날짜를, 사진을, 오래된 신문 기사를 출력한 종이를, 책을 모으기 시작했다. 코크라는 도시에 흠집이라도 낸 여자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가톨릭교회의 권위를 빌리지 않은 여자라면 더더욱 하늘의 별 따기였다. 이를 확인한 모린은 코크에 대해, 자기 나라 아일랜드에 대해 화가 났지만, 동시에 내심 안도감이 들었다. 자신은 혁명가를 낳는 정도로밖에 혁명에 기여할 수 없다고 여겨온 게 아주 틀린 생각은 아니었던 것이다. 결국 누가 뭐래도 모린은 칠칠치 못한 계집은 아니었다. 최근에 모린은 암울한 생각에 빠지곤 했고, 그런 생각 중에는 어떻게 포장지만 좀 같아 끼운다면 자기 아들 지미가 혁명가처럼 여겨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있었다. 한 남자의 혁명이 다른 남자에게는 테러일 수 있다는 것. *남자들이란...* 예수님 정말이지, 모린은 탄식했다. 그러자 생각이 뻗어나갔다. *예수...* *예수라.* 신이 되어버린 남자, 예수.

어렸을 때 모린에게 여자라는 자기 성별은 잔인한 농담과도 같았다. 여자의 몸은 고난받도록 만들어진 몸이었고, 물론 모린은 자기가 그저 고난받으려 태어났다고 느끼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만약 그렇다고 치자면 그건 그리스도 예수와 상당히 비슷하지 않은가? 거기 담긴 신성모독이란. 상상해보라. 이것이, 더럽고, 피를 흘리고, 천하디천한 고작 껌데기, 남자가 허구한 날 폭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여자라고 불리는 이것이 성스럽다고 선언하는 상상을 해보라. *너는 여신이야. 천사야. 아주 성스러울 정도야.* 남자가 허락한다면, 그런 축복을 내린다면, 이런 말을 들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 말을 믿어버린다? 그건 죄다. 고난받으려 태어난 그리스도 예수, 그렇다면 여자도 그건 마찬가지인데, 예수에 더 가까운 건 남자라고들 한다. 아니, 남자가 대체 무슨 고난을 겪는다고? 상처 입은 자존심, 아니면 통통 부은 한쪽 불알? 아, 자해가 있지, 모린은 그렇게 추측했다. 어쩌면 남자가 자기 자신에게 해를 입히는 건 무의식적으로 균형을 회복하려는 건지도

모른다. 자기 자신에게, 세상에겐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갯세마네 동산의 예수처럼, 우리*
남자들은 머리털을 쥐어뜯고 하늘을 올려다보느니라.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버리셨냐고? 그걸 몰라? 아버지들은 잘들 그러니까! 모린은 피츠제럴드 공원의
벤치에 검은색 마카로 그렇게 써 내려갔다. 그러니 이 도시 코크가 모린에게 등을 돌렸다면,
코크의 성별은 남자가 분명했다.

요즘은 모린 스타일의 미친 짓이 잔뜩 벌어졌다. 어쩌면 암전히 편안함에 안주하던 아일랜드
여자들이 마침내 잠에서 깨어나는 건지도, 자기 손발을 묶고 가둔 남자들에게서 마침내 벗어나려
하는 건지도, 아니면 마침내 의식 고양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몰랐다. 마침내, 마침내
말이다. 여태 평범한 아일랜드 여자들은 어떤 식으로든 안전이라는 보상을 얻을 수만 있다면
자매들에게 쉽게 등을 돌리는 경향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들은 나라를 거꾸로 까뒤집고 교회를
발로 차 내쫓을 기세였다. 모린은 기쁘긴 했지만, 예상치 못한 변화에 심기가 불편하기도 했다.
먼저 동성 결혼 합법화가, 그리고 곧 낙태죄 폐지가 왔다. 아일랜드 바깥에서는 성희롱과 위계에
의한 성범죄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었고, 매일 새로운 남자 유명인이 처신을 똑바로 못해 위기에
빠졌음이 밝혀졌다. 백악관을 차지한 머저리가 아마 어떤 식으로든 뒤에서 힘을 써주고 있었을
것이다. 그 머저리는 자기 영덩이도 못 찾을 것처럼 아둔해 보이는 놈이긴 하지만 말이다. 보통
때였다면 모린은 이런 말끝에 "하나님은 저런 놈도 사랑하시겠지"라고 덧붙였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는 아일랜드에 계시지 않았다.

그러니 어쩌면 이 동네 코크를 구할 영웅들이 곧 도착할지도 모른다. 동네의 면면을
바꾸려고 마음먹은, 엘리 또래의 젊은 여자들. 그들 덕분에 코크는 평정을 되찾을지도 모르고,
모린이 계획한 대로 관광 가이드가 된다면 몇 주마다 새로운 이름들을 관광 코스에 추가하게
될지도 모른다. *여러분, 저기가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그 여자분의 모교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말하게 되겠지. 여러분 이러저러한 운동이 몸집을 키운 곳이 바로 저 여성 공간입니다.

상상 속에서 엘리는 방송사 카메라 앞이다. 부둣가에서 선언문을 읽고 있다.

아니, 엘리가 시청에 쳐들어가고 있다.

아니, 다시 보니 엘리는 단식투쟁을 하고 있다.

아니아니, 엘리는 공원 벤치에 검은 마카로 이렇게 적고 있다. *지들은 쉽게 살아놓고 막달레나 피해자인 척하는 아줌마들은 버리고 가자.* 1920년대 아일랜드에서 일어난 막달레나 수녀원 사건은 수많은 여자 피해자를 낳았고, 최근에야 실상이 밝혀졌다.

때때로 모린은 제대로 술을 마시며 살아왔다면 좋았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모린이 젊은 처녀였을 시절엔 젊은 처녀는 술에 취하면 못쓴다는 분위기였고, 그래서 모린은 허용되는 선에서 이따금 진토닉을 들이켜는 정도에 그쳤다. 이제 와 보니 자신도 술집의 높은 의자에 앉아 만사를 고찰하는 꽤 괜찮은 개똥 철학자가 됐을지도 모른다. 모린의 입에서 자연스러운 관용 표현이 튀어나왔다. *주의 자비하심이 아니었다면 말이지...*

인제 보니 모린은 위대한 종교 지도자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주의 자비하심이 아니었다면 말이지...*

아일랜드에 마침내 변화가 찾아온다면 모린은 마음이 가벼워지리라 생각해왔다. 물론 모린이 지난 몇 년간의 맛깔나는 소란을 즐긴 건 사실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자기 정체성에 구멍이 뿔 뚫린 기분이 들었다. 여자라는 게 무엇인지 바뀌어버린 지금 모린은 두 상태의 가운데 어디쯤을 헤매고 있었다. 나이가 든 무리에 속할 만큼 물렁한 것도 답답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젊은 무리에 속할 만큼 똑 부러지거나 혁명적이지도 못했다.

모린은 집에 들어와 주전자를 불에 올렸다. 협탁 위에는 모린이 모아둔 코크의 역사가 있었다. 모린은 소파에 앉아 협탁 위에 놓인 종이 무더기를 살피기 시작했다. 어떤 즐거움도, 어떤 활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가 마시는 건 건강식품점에서 마지못해 구매한 라벤더 차였다. 그는 잠들 수 없는 기후를 지나가고 있었다. 대체 어디로 비난의 화살을 돌려야 할지 마음을 정할 수가 없었다. 한때 나라 탓을 하곤 했으나, 이젠 보기 드문 지상낙원이 되어버린 아일랜드를 탓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아마 엘리가 속한 젊은 세대를 축하해야 하리라. 그러나 축하를 하는 데 어찌나 많은 자기희생이 필요하던지 모린은 어질어질한 지경이었다.

모린은 유리얼 맥스위니에 대해 읽고 있었다. 유리얼은 남편 테런스 맥스위니가 아일랜드

독립을 위해 투쟁하다 죽자 운동가로 돌변한 여자였다. 위대한 애국투사이자 나쁜 엄마라니, 모린이 금세 빠져들어 유리얼의 팬이 되기로 마음먹었을 즈음이었다. 누군가 문을 쿵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나 달라 문 앞에 선 건 코크의 수많은 말썹꾸러기 아들들 중 하나였다. 한때는 진심으로 친아들이나 다름없다고 믿었던 라이언이 갑자기 찾아온 것이다.

“아니, 이게 웬일이래요?” 모린은 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마치 자기 뒤쪽에 대강당을 가득 채운 수다쟁이 할머니들에게 라이언을 소개하듯 팔을 바깥으로 뻗은 채였다. 나이 먹는 데는 서툴고 젊은이를 이끄는 데는 더더욱 재주가 없는 부류가 이쪽을 일제히 기웃거리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턱을 위로 치켜들고 콧구멍을 벌렁거리는 남자는 기운 펄펄한 수사슴처럼 생김새가 흰했다. “모린, 당신이 뒷담 까고 다녔어?”

“내가 뭘 했다고?” 모린이 되물었다.

“나에 대해 뒷담 까고 다녔냐고.” 라이언이 말했다.

“대체 누구한테?” 모린이 말했다.

“아일랜드 동네방네에 대고!” 라이언이 욕설을 섞어가며 답했다.

“아일랜드 동네방네? 내가 너에 대해서? 맙소사, 너 대체 내가 몇 살이라고 생각하니? 라이언, 난 너희 아버지를 길 가다 만나도 너 애긴 하려야 할 게 없을 거다.”

라이언은 검지를 치켜들고 말했다. “당신은 3년 전에 나한테 충분히 피해를 줬어.”

모린이 물었다. “무슨 피해? 넌 한국 가서 잘만 활개 치고 다니는 줄만 알았는데?”

“아, 그게 문제시다? 내가 잘 나간다는 얘기를 들어서 열받아서 그러셨다?”

“이 정신 나간 놈아.” 모린이 말했다. “일단 들어와라.”

“내가 들어갈 거 같아?” 라이언은 뻗은 손가락 쪽으로 턱을 갖다 붙였다. “모린 당신이 꾸민 일이기만 해. 예수님 걸고 맹세하는데 두고 봐.”

“너가 왜 이러는지 아무래도 지미에게 물어봐야겠다.”

“물어봐, 어디. 내가 지미를 얼마나 봐주고 있는데. 그놈이 또 날 등쳐먹어도 참을 줄 알아?”

모린은 턱이 손가락과 다시 가까워지는 걸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라이언, 네 행동이나 한번 돌아봐. 무슨 헛소문을 듣고선 이 시간에 내 집에 와서 문가에서 행패야?”

“어떤 누가 내 인생을 망치려고 작정해서 말이지. 존나 압삽하고 치사한 게 누구네 엄마가 할 법한 일이란 말이야.”

“아, 네가 아는 엄마라곤 나밖에 없니? 왜, 너희 아들도 엄마가 있잖아. 네가 엄마로 만들지 않았어?”

라이언이 다시 몸을 가까이 기울였다. “지금 뭐라고 했어?”

“아주 귀엽둥이더라.” 모린이 미소를 지었다. “디아메이드라고 했나? 이름도 잘 지었어. 아빠를 그대로 빼닮았더라고.”

“어디 계속해 봐.” 라이언이 말했다. “계속해 보라고, 이 씨—”

라이언은 이제 손을 뺐으면 왼쪽 귓바퀴를 잡을 수 있을 만큼 가까웠고, 그래서 모린은 그렇게 했다.

“이 하룻강아지 같으니라고.” 모린이 말했다. “대체 네가 뭔데?”

모린 손에서 라이언의 허리는 거의 반으로 접혔고, 뺨에는 빠르게 피가 돌고 있었다. 라이언의 킁킁거리는 소리를 동의라고 친 모린은 라이언을 앞쪽으로 잡아끌었다. “들어오렴.” 라이언은 모린의 말을 따랐다. 모린은 단호했고 라이언은 분한 나머지 어안이 병병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 광경을 지켜보는 구경꾼이라도 있었다면 라이언은 악에 받쳐 눈물이라도 흘렸으리라 모린은 확신했다. 모린은 라이언의 귓가를 잡고 거실까지 끌고 갔다. 어찌나 만족스럽든지 가파르게 솟은 패트릭 언덕까지 이런 식으로 끌고 가고 싶을 정도였다. 모린은 악당을 했어도 잘했을 것이다. 위대하면서도 악독한 수녀를 했어도 잘 해냈겠지. 역시나 주의 자비하심만 아니었다면...

모린이 놓아주자 라이언은 말을 잃은 듯했다. 그저 가만히 서서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귓바퀴의 검은 피어싱을 문질러댈 뿐이었다.

“애, 넌 깡패짓도 제대로 못 했겠다.” 모린이 말했다.

라이언은 가정 교육에 문제가 있었다. 그 아버지를 만난 적 있는 모린은 라이언이 얼마나 귀가 얇고 유약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지 알았다. 어머니를 만난 적은 없지만, 책임감 있는 여자라면 이탈리아에 사시는 부모님을 뒤로하고 코크의 공공주택까지 와서 아이 여섯을 낳지는 않았으리라. 게다가 가정 교육을 잘 받은 남자애가 깡패가 될 리가 없지. 모린은 이런 일에는 일가견이 있었다. 모린 자신의 아들도 학교 목사님들 손에 잘못 굴러지다가 결국 혼자서 어엿한 골칫거리가 되지 않았던가.

그러는 와중에도 라이언 쿠색은 귀가 잡힌 일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다. 뻘히 체벌이 가해지는데 가만히 놔둔 라이언이었다. 모린이 라이언이었다면, 모린은 먼저 공격한 사람을 때려눕힌 후 문을 차서 구멍을 뚫어냈겠지만, 모린은 라이언이 아니었다. 도저히 같은 세대라고도 할 수 없었다. 어떻게 젊은이들은 그렇게 연약하면서도 자기 옳은 줄만 아는지 수수께끼였다. *죄 머릿속에서만 일어나 버릇해서 그렇지.* 모린은 생각했다. *다 연결이니 권리니 책임이니 운운할 줄이나 알지, 신체적으로 충격을 주면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차나 한 잔 주랴?” 모린이 물었다.

“날 그런 식으로 잡지 마.” 라이언이 말했다.

“그래 알았다.”

“내 귀 뽀힐 뻘한 건 알아?”

“안됐구나. 할머니를 그렇게 위협하고 말이지. 혼자 사는 할머니한테 말이야.”

“내 아들 얘기를 꺼낸 당신 잘못이지.”

“왜? 넌 아들이 자랑스럽지 않아?”

“똑똑하게 굴지 마시지.”

“세상에, 라이언, 우리 둘 중 적어도 하나는 똑똑하게 굴어야 하지 않겠니?”

모린은 라이언이 차를 어떻게 마시는지 기억해냈다. 차나 실컷 만들어주리라. 모린은 다시 묻지 않고 차 타는 일에 착수했다. 모린이 돌아봤을 때 라이언은 피아노 앞 의자에 앉아있었다.

그 피아노는 라이언 어머니의 것이다가 우여곡절 끝에 모린 손에 들어왔다. 라이언은 아직도 붉으락푸르락한 기색이 다 가지지 않은 상태였다. 라이언은 차를 거절하지도 않았지만, 모린이 내민 머그잔을 받아들지도 않았다. 모린은 머그잔을 피아노 위에 내려놓았다.

“내가 지미한테 묻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하는 말인데 너 대체 뭐가 문제야?” 모린이 물었다.

“봐, 당신 아는 거 같은데.”

“나는 모른다.”

“그럼 우리가 올리는 영상마다 가서 내가 코크의 수치라고 댓글 남긴 거 당신 아냐? 기자들한테는 내가 마약 딜러였으니 우릴 음악 행사에 초대해선 안 된다고 고자질하고? 꼭 당신이 재미 삼아 할 만한 일 같은데.”

“우리라고? 대체 우리가 누군데.” 모린이 물었다.

라이언은 코를 문질렀다. “나랑.... 내가 하는 거 있어.”

“네가 하는 게 뭔데?”

“음악 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음악 일이라고?”

“우리, 그러니까....” 라이언이 단어를 꼬집어내기까지는 몇 초가 걸렸다. “밴드 말이야.”

“네 가설을 정리해보자. 내가 네가 하는 밴드에 관해 인터넷에 나쁜 말을 남기고 다닌다는 거지?”

“가설이 아냐.”

“라이언, 내 나이가 예순여덟이다.”

“그렇다고 못 하라는 법은 없지.”

“너를 똥통에 빠트리면 내 아들내미한테 타격이 가는데 내가 대체 왜 그러겠니? 네가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하고 다닌다고 해봐라. 다들 너 같은 나쁜 놈 위에 있는 더 나쁜 놈을 알고 싶어 하지 않겠어? 나는 내 아들을 끔찍하게 사랑한다, 라이언.”

“웃긴 게 뭔지 알아? 내 생각엔 당신이 아들한테 가까워지려고 이런 일을 꾸민 거고 그렇지만 지미는 내 탓을 할 거고 조금이라도 인기 가도에 오르면 내 다리를 분질러놓을 거 같은데.”

“인기 가도에 올라? 너 음악 얘기를 하는 거지?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도 그럴 수가 있니? 그 얼굴에 비닐봉지를 뒤집어쓰고 유명해진 그 리머릭 출신 가수처럼 말이냐?”

“몰라.” 라이언이 말했다. “내가 뭘 말을 지껄이는지 나도 모르겠다고.”

모린은 자기 머그잔을 기울여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차는 이미 차가워져 있었다. 모린은 앓는 소리를 낸 다음 다시 찻잎에 뜨거운 물을 부으러 일어났다. 모린이 돌아오자 라이언이 얘기를 이어나갔다. “난 개같이 노력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엄지와 검지를 입에 쑤셔 넣었다.

“좋아 보이는구나.” 모린이 말했다. “네가 노력하고 있다는 건 딱 봐도 안다.”

“내 아들 이름은 대체 어떻게 알았어?”

“당연히 너희 아버지를 만났을 때 봤지.”

“내가 서울에 있었다는 건 어떻게 알았고?”

“여긴 서울과는 다르게 작은 도시라서.”

“그게 바로 내 문제지.” 라이언이 자기 주먹에 대고 말했다.

“개새끼들.” 모린이 말했다.

“뭐라고?”

“그냥 개새끼들이라고 생각해라, 라이언. 널 욕하는 애들 말이야. 나 같으면 신경을 안 쓰겠다.”

“난 신경 써야 해.”

모린이 어깨를 으쓱했다. “그래도 너한테 유리한 게 한 가지는 있잖니.”

라이언은 그 한 가지가 뭐냐고 묻지는 않았지만, 미간을 찌푸린 채 모린을 봤다.

모린은 설명했다. “네 다리 사이에 달린 거 말이다.”

“아, 모린 당신 미쳤어?”

“진짜라니까? 이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보라. 다 남자잖아. 너도 잘 빠져나갈 거다. 코크는 반항적이고 야심만만한 남자애를 좋아하지. 코크 출신 남자를 아주 떠받든단 말이야? 여긴 아주 남성적인 도시야.”

“남성적인 도시? 웃기고 있네.”

“유명한 코크 출신 여자를 어디 한 사람만 대봐.”

“몰라. 마더 존스?”

“뭐?” 모린은 되물었다. 오늘만 두 번째로 모린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게추가 들리는 기분이었고, 그 허전함이 모린을 맥을 못 추리게 했다. “누구라고?”

“그 노조 하는 여자. 미국에서 제일 위험한 여자라고들 하잖아.” 모린이 추켜세운 눈썹에 대답이라도 하듯 라이언은 도끼눈을 뜨고 말을 이었다. “내 친척이 그런 거에 환장해서 아는 거거든.”

“나도 마더 존스라는 이름은 안다.” 모린이 되쏘았다.

“일하는 자의 인권이니 뭐니.” 라이언이 말했다. “내가 원하는 건 그냥 일을 하는 거라고. 근데 나 같은 부류한테 그 일이 너무 과분하다는 식이잖아, 내가 잘하는 일인데도 말이야.... 돌아버리겠어.”

“나도 마찬가지로란다.” 모린이 말했다. “대체, 마더 존스라니. 신이시여, 너 남자한테 그 얘기를 들어야 하는 내 심정이 어떨지 모르겠니?”